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분석

1. 출제 경향

① 총평

실생활에서 겪는 가치 갈등 상황이나 가치 판단을 요하는 소재로 구성된 문항이 줄어들고, 다양한 윤리 이론이나 이론적 관점을 활용한 문항들이 늘어났다. 전통 윤리에 관한 심화된 내용을 묻는 문항이 늘어났으며, 토론의 논리적 형식을 활용한 문항도 출제되었다. 비교적 제시문의 길이가 많아졌으며,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그래픽이나 삽화를 활용한 문항이 유지되기는 했지만, 합답형 문항의 수는 줄어들면서 독해 능력과 깊은 사고 능력을 측정하려는 경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모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심화된 수준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EBS 교재와 연계에도 충실을 기하였다. 아직도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 상황을 특정한 윤리적 시각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문제들이 20% 이상 출제되었으며, 서로 대립되는 이론적 시각을 활용한 문항들이 출제에 있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BS 교재에 수록된 자료나 지문을 활용하여 출제하려 노력하였으며, 개념이나 원리를 활용하는 문항과 문항을 변형하여 만든 문항들도 적정 비율 출제되었다.

I. 생활과 윤리의 의미에서는 응용 윤리학과 메타 윤리의 구분, 유·불·도교의 인격 수양 방법, 사회 윤리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전부 EBS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하였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메타 윤리학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출제 경향과는 달리 심화된 지문에서 혼동을 겪을 수 있다. II. 생명·성·가족 윤리에서는 낙태를 반대하는 근거, 관례, 효,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EBS 교재와 연계한 문항이 4 문항 중 2개로 50% 가량이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이론적 관점을 묻는 문항과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문항이 골고루 출제되었다. 비교적 난이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문항이 출제되었으나, 자세히 보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III. 과학·생태·정보 윤리에서는 과학 기술의 영향, 감정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의 비교 이해, 정보 사회에서의 판옵티콘 현상, 불교와 도교의 자연관을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주로 관점을 비교하는 형태로 출제되었고,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EBS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에서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큰 어려움 없이 풀어 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IV. 사회 정의와 직업윤리에서는 톨스의 정의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묻는 문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직업에 대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톨스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지를 묻는 문항이 높은 난이도의 문항으로 출제되었으나 풀기에 아주 어려운 문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V. 문화와 윤리에서는 종교, 유교의 예악, 매체 윤리에 관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그래픽을 활용한 문항이 2문항이나 되며, EBS 교재와 연계된 문항도 2문항이었다. VI. 평화와 윤리에서는 국제관계에 대한 관점, 민족주의와 열린 민족주의, 다문화 수용 이론에 관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이 부분도 삽화와 퍼즐을 활용하여 출제하였고 3문항 중 2문항이 EBS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전반적으로 사고를 요하는 문항이 많았으나 최고 난이도의 문항이 적어, 변별력을 확

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보인다.

* 출제경향 특징 3가지

- 하나, 이론이나 대립되는 관점을 비교하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
- 둘, 삽화나 그래픽을 활용한 시각적인 문항보다는 독해 능력을 요하는 문항이 늘어났다.
- 셋, EBS 교재의 자료 및 지문을 활용한 문항들이 복잡한 사고를 요하는 문항으로 변형되었다.

② 파트별 세부 출제 경향

이번 9월 모의평가는 각 단원별로 고루 출제되었는데 생활과 윤리의 의미에서 3문항, 생명·성·가족 윤리에서 4문항, 과학·생태·정보 윤리에서 4문항, 사회 정의와 직업 윤리에서 3문항, 문화와 윤리에서 3문항, 평화와 윤리에서 3문항이 출제되었다.

문항 형태에 있어서는 합답형 문항이 5문항이 출제되었고, 삽화, 사진 등을 활용한 문항도 적절하게 출제되었으나, 이 속에서도 독해를 요하는 지문의 길이가 비교적 늘어났다. 흐름도를 활용한 문제가 1문항, 퍼즐을 이용한 문항이 1문항, 삽화를 활용한 문항이 2, 그래픽을 활용한 문항도 2문항이 출제되었다. 이론적 관점들의 비교를 묻는 문항이 비교적 많이 출제되었으며,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응용 윤리적인 문항이 교과 특성과 관련하여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난이도

〈2012년도 5월 예비 평가/ 2013년도 6월 모의평가와 비교〉

영역	2012년도	2013년도
	5월 예비 평가와의 비교	6월 모의평가와 비교
생활과 윤리	어려움	약간 어려움

2012년 5월 시행된 예비 평가의 난이도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다. 2012년 5월 예비 평가의 경우 교과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항들이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출제 의도가 강했다. 그래서 변별력을 고려하기보다는 처음 출제하는 생활과 윤리 과목의 출제 경향을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3년 6월 모의평가의 경우는 실제 수능을 대비하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교과서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고난이도 문항이 2, 3문항이 출제되었고,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깊이 생각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많았다. 특히 학생들이 미처 학습하지 못한 전통 윤리 사상을 주제로 한 문항들은 그리 어렵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문항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평가는 지난 6월 모의 평가보다는 이론적 시각을 활용한 문항이나 대립되는 관점들의 비교를 묻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교과서에서 이론적 시각이나 대립되는 관점들을 충실하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문항을 푸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EBS 교재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계 출제된 문항들이 많아 학생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학생들은 문항 형태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6월 모의 평가와 난이도가

비슷했거나 약간 어려웠을지라도 학생들은 쉽게 느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난이도 문항이 거의 없어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히 고난도 문항으로 보이는 문항은 없지만 전반적인 문항 난이도는 있는 편이다. 특히 문항 속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들의 길이가 비교적 많아졌으며, 이론적인 관점도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항을 출제하였으며, 학생들의 사고력과 응용력을 평가하려는 문항들이 많았다.

① 파트별 세부 난이도

지난 6월 모의 평가는 각 단원별로 고루 출제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이론적 관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많이 출제되었다. 전통 윤리를 흐름도 형태로 만든 12번 문항에서 생소한 개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난이도 면에서는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 16번 문항이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19번 문항은 최고 난이도의 문항으로 학생들이 당황했을 가능성이 컸다. 고난이도 문항이 2, 3개 있었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춘 평가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몇몇 문항들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전체적인 문항들의 질이 낮아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9월 모의평가도 6월 모의 평가와 같이 단원별로 고르게 안배되었다.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출제되어야 할 주제들이 잘 어우러져 출제되었다. 제시문에서 답을 찾아내는 문항도 4문항 정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제시문의 길이가 늘어나 문항을 읽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 거의 없고 사고를 요하는 문항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항들을 세밀하게 읽고 분석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난이도 문항이 거의 없다고 느낄 것이다. 7번 문항과 11번 문항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7번 문항의 답을 찾는 데 공통 스텝기는 하지만 최고 난이도 문항이 되기에는 부족해서, 상위권 학생들은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1번 문항도 어려운 문항이기는 하지만, 6월 모의 평가에서 같은 주제가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 학생들이 이미 대처 능력을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고난도 문제

- 7번 - EBS 교재에서 출제된 2문항을 종합하여 연계한 문항이다. 이 문항은 두 개의 제시문과 벤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구성한 문항이다. 상식적으로 갑의 사상에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은 을이 주장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 포함되기 때문에 벤다이어그램의 포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혼동을 빚을 수 있었다. 그러나 EBS 교재를 공부한 학생들은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한 형태의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각 사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각 사상들을 비교하여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문항을 틀리기 쉽다. 앞으로도 유사한 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감정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생명 중심주의와도 비교하여 이해해야 한다. 생활과 윤리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의 문항을 출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인간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 부분은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19번 - 플라톤과 순자의 직업에 대한 사상에 대한 문항이다. 갑, 을이 어떤 사상이 인지는 EBS 교재를 공부한 학생들은 비교적 무난하게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기>의 선택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각 사상가들의 직업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의 전형적인 문항 형태가 아닌 듯하고, 사상가들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를 묻기에 학생들이 혼동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고난이도 문항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이 문항을 푸는 데 충분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신유형 문제

- 11번 - 물스의 절차적 정의에 있어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갑이 절차적 정의를 중시한 물스라는 것은 무난하게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모의 평가와 EBS 교재에서 다루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 상황>을 분석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치를 표 속에 넣어 이해를 요구하는 형태의 문항은 자주 출제된 형태도 아니고, 표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6월 모의 평가에서 물스에 대하여 행담과 비교하면서 이런 유사한 형태의 문항이 출제된 적이 있다. 최고 난이도 문항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세밀하게 공부하여 대처 능력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학생들이라면 도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③, ⑤의 선택지에서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 다 옳은 표현이지만 물스의 입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인 ⑤번이기 때문이다. 2중 3중의 함정을 파 놓은 형태의 문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주제와 문항에 대처한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분석

① 연계표

문항 번호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	쪽수	문항번호 (내용요소)
1	수능완성 생활과 윤리	p. 11 p.143	1번 1번
3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p. 159	7번
4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p. 54	5번
6	수능완성 생활과 윤리	p. 20	3번
7	수능완성 생활과 윤리	p. 69 p.167	5번 17번
9	수능완성 생활과 윤리	p. 152	17번
10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p. 17	4번
12	수능완성 생활과 윤리	p. 21	6번
13	수능완성 생활과 윤리	p. 103	9번
14	수능완성 생활과 윤리	p. 109	6번
15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p. 74	3번
18	수능완성 생활과 윤리	p. 123	2번
19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p. 135	7번
20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p. 197	4번

② 채감 연계도

출제된 20문항 중 EBS 수능 특강에서 14문항을 연계하여 출제하였으며 연계율은 70%이다. 연계 유형도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자료 및 지문을 활용한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학생들의 채감 연계도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및 지문을 활용한 문항이 6문항이었으며, 개념 및 원리를 연계한 문항이 4문항, 문항을 변형한 문항이 4문항이었다.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꼼꼼하게 공부한 학생들에게 채감 연계도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연계유형별 세부 분석

(1) 개념/원리 활용

- 대표 문항 : 4번, 6번, 14번, 18번

개념/원리 활용의 경우 4번, 6번, 14번, 18번 4문항이 출제되었다. 4번 문항은 삼화로 만들어진 관례에 대한 내용을 제시문으로 변형하여 출제하였다. 6번은 불교 사상에 대한 문항의 개념을 활용하여 유·불·도 사상의 비교를 묻는 흐름도 문항으로 변형하였기 때문에 연계된 느낌이 의외로 적었을 것이다. 14번은 제시문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여 출제하였기 때문에 연계의 정도가 높았다고 생각된다. 18번은 문항은 흐름도를 삼화로 처리하여 변형시킨 문항이다. 하지만 개념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풀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2) 자료 및 지문 활용

- 대표 문항 : 1번, 3번, 9번, 10번, 13번, 19번

자료 및 지문을 활용한 형태는 6문항이 출제되었다. EBS 수능 특강에 제시된 지문을 활용하여 출제하였기 때문에 문항을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번 문항은 응용 윤리와 메타 윤리에 관한 내용을 수능 완성에서 연계하여 출제된 문항이다. 메타 윤리를 심화하여 출제하였기 때문에 채감 난이도는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3번 문항은 엘리자베스의 성과 속의 개념을 지문을 활용·변형한 형태로 출제하였기 때문에 무난하게 풀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9번 문항은 판옵티콘에 대한 지문을 약간 변형하여 출제하였지만 제시문의 내용이 쉽게 파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0번 문항도 니부어의 사상을 EBS 수능 특강에서 활용하여 만든 문항이다.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연계된 느낌이 강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3번 문항은 지문을 대화 형태로 연계한 문항이다. 내용을 그대로 가공했기 때문에 문항을 푸는 데 어려움은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번 문항은 수능특강의 지문을 현저하게 가공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채감 난이도는 무척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및 지문을 활용한 문항들에서는 몇몇 문항이 난이도를 높게 조정하면서 심화된 내용으로 가공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에 EBS 교재에 있는 문항들을 꼼꼼하게 풀어본 학생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문항의 변형

- 대표 문항 : 7번, 12번, 15번, 20번

문항의 변형 형태로 출제된 문항은 4문항이다. EBS 수능 특강에 있는 문항의 형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출제하였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학생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크다. 7번 문항은 지문을 유사하게 활용하였지만 형식을 전혀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채감 난이도가 무척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2번 문항은 변형이 적어서 쉽게 풀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5번 문항은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변형하였지만 내용은 거의 그대로 살리고 있기 때문에 채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20번 문항은 용광로 모델을 퍼즐로 변형하여 출제된 문항이다. EBS 수능 특강을 세밀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대표 연계 문항

9월 모의평가 문항 14번	EBS 수능 완성 109쪽 6번
<p>14. 다음 글의 사상적 입장에서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선왕(肅宗)이 문정(文貞)을 파주(坡州)의 목원(木原)을 방문했다. 목원은 백성의 마음을 넓히 고고(高高)한 백의(白衣)의 마음을 헤물리게 한다. 「(문정) 목원(木原)은 원시(元始)를 되찾아온 언(言)이다. 하늘(天)의 목원(木原)을 다스리면 곧(則) 영은(靈恩)이 자연스롭고 돌아온다.</p> <p>① 예수는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가? ② 예수는 도덕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하는가? ③ 예수는 예수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④ 예수는 신(神)보다 미(美)를 중시해야 하는가? ⑤ 예수는 사회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가?</p>	<p>06 _____</p> <p>다음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가)에서 고른 것은?</p> <p>• 예수는 법에서 나아가 행위에 있고 윤리(倫理)는 스스로 행해야 한다. 예의 행에서 나아가 행할 수 있을 때는 자유로 스스로 움직이고, 윤리(倫理)는 연대(連帶)하여 조율할 수 있을 때는 온 마음을 바친다. 따라서 예에서 법에서 나아가 행위를 윤리(倫理)하여 결정하는 것은 그 의미가 없다.</p> <p>• 영은의 전달은 예(禮)에서 시작(始)하여 지행(知行)하는 것을 비로로 인도(引導)하며, 윤리(倫理)로써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和)한다. 영은(靈恩)은 궁정(宮廷)의 목원(木原)은 모두 영은(靈恩)을 행하여도 결국 하여 말기(말기)는 영은(靈恩)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p> <p>가 보기 —</p> <p>가. 도덕성보다 윤리를 자유로워야 한다. 나. 예수는 도덕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다. 윤리는 도덕을 전달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라. 윤리와 도덕(道德)의 차이(差)가 사회(社會)를 설명할 수 있다.</p> <p>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p>
<p>[자료/상황 활용] “예기”에 있는 예의에 관한 내용을 묻는 문항이다. 6번 문항의 두 번째 자료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였다. 그래픽으로 형태를 바꾸어 출제하였지만, 내용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EBS 교재를 풀어본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p>	